

<2018년 3월 28일 수요일말씀>

시간을 아끼고 영원한 것을 위해 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생각으로 시간을 쉼

본 문 에베소서 5장 15-16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, 성자의 평강과,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,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은 <시간>에 대해 말씀하면서,
<부활의 때에 해당되는 것>을 말씀해 주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◆ <시간>을 사랑해야 됩니다.

<시간을 뺏는 것>은

- ‘애인을 뺏는 것’ 과 같고,
- ‘한 생명을 뺏는 것’ 과 같습니다.

◆ <시간>을 뺏어서 ‘그때마다 할 일’ 을 해야 됩니다.

‘<한 시간>을 뺏으면, <한 생명>을 얻는다.’

라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.

- ◆ 1분씩, 혹은 한 시간씩 시간을 뺏다 보면
〈얻는 것〉이 하나씩 쌓여서 결국 〈많은 것〉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.

- ◆ <시간을 뺏는 것>이란 ‘시간을 아껴 쓰는 것’입니다.
그리함으로 ‘큰 시간을 얻는 것’입니다.

- ◆ <시간을 아껴 쓰는 자>가 ‘오래 사는 자’입니다.

시간을 아껴서 - 다른 사람들보다 ‘많이’ 행하고,
그만큼 ‘많은 것’을 얻기 때문입니다.

- ◆ <시간을 아껴 숨으로 오래 사는 자가 되는 방법>이 있으니,
 - 첫째, 일찍 일어나기입니다.
 - 둘째, 뛰든지 빨리하기입니다.

그러면, 시간을 아껴 ‘큰 시간’을 얻게 됩니다.

- ◆ <큰 시간>을 얻었으면,
그 시간을 <삼위와 주의 생각>으로 써야 됩니다.

<삼위와 주의 생각으로 쓰지 않고 자기 시간으로 쓰는 자>는
- ‘시간을 다 뺏긴 자’입니다.

<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시간>으로 써야
- ‘시간’을 뺏기지 않습니다.

- ◆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,

“시간이 있어도

그 시간을 ‘자기 시간으로 쓰는 자’는 불법한 자니라.

<전능자의 생각>으로 쓰지 않으면
시간을 뺏긴 고로 그 시간을 쓸 수 없나니,
너희는 매일 <하늘에 속한 생각>으로 시간을 쓸지니라.

매일 <시간과의 싸움>이니라.

매일 <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>는
같은 시간을 살아도 오래 사는 자니라.” 하셨습니다.

* 잠시 쉰다.

- ◆ <작은 시간>만 가지고 살면, 오래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.

<시간>을 아끼고 그 시간을 ‘하늘에 속한 시간’ 으로 써야,
<큰 시간>도 얻고 <영원한 것>도 얻게 됩니다.

고로 ‘같은 시간을 살아도 오래 사는 자다.’ 할 수 있습니다.

- ◆ <큰 시간>을 얻고 <하늘에 속한 시간>으로 쓰려면,
 - 새벽부터 부지런히 행하기입니다.
 - 하루 24시간을 아껴 쓰기입니다.

- ◆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고 늦게 일어나면,
그날 하루를 <작은 시간>만 가지고 쓰며 살아야 됩니다.

<작은 시간>을 가지고는 아껴도 얼마 안 됩니다.

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행해야 <많은 시간>을 아낄 수 있습니다.

- ◆ 가령 하루 <새벽>에 ‘4시간’ 을 아끼면,
<한 달>이면 ‘120시간’ 을 아낄 수 있습니다.

그리고 하루 <낮>에 ‘4시간’ 을 아끼면,
역시 <한 달>이면 ‘120시간’ 을 아낄 수 있습니다.

그러면 ‘총 240시간’ 을 얻게 되어,
<한 달>이면 ‘10일’ 을 더 얻고 살게 됩니다.

고로 <1년>이면 ‘120일’ 을 더 얻고,
<10년>이면 약 ‘3년 3개월’ 을 더 얻고,
<100년>이면 약 ‘33년’ 을 더 얻고 살게 됩니다.

- ◆ <지예>는 ‘계산’ 입니다.

<그 차원에 사는 자>만 계산하고, 더 얻고 쓰면서 삽니다.

- ◆ <큰 시간>을 얻으려면, ‘순간의 시간’ 도 아껴야 됩니다.

그래야 그 시간이 모여서 ‘큰 시간’ 이 됩니다.

<큰 시간을 얻는 자>는 ‘큰일’ 도 합니다.

- ◆ <자기>를 ‘시간으로 연단하기’ 바랍니다.

연단하지 않고 보통으로 하면, <큰 시간>을 얻을 수 없습니다.

매초마다 생각하고 행해야 시간에 연단되어

그로 인해 ‘시간과의 싸움’ 에서 이기고 ‘큰 시간’ 을 얻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오래 살려고만 하면 - 시간도 가치 없이 쓰고, 무미한 삶을 삽니다.

<시간>을 가지고 ‘무엇을 했느냐’ 가 중합니다.

<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>에 따라 ‘삶의 가치’ 가 좌우됩니다.

곧 <시간>을 가지고,
<육>을 위해서도 해 놓고 <영원한 것>을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.

그래야 그 삶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- ◆ <육>을 위해서도 해 놓지 않고
<영>을 위해서도 해 놓지 않으면, ‘미래’가 없습니다.

고로 오래 살아도 ‘아무런 희망’이 없습니다.

결국 <육>으로 끝나고,
<영의 영원한 축복>과도 관계없는 자가 됩니다.

- ◆ <세상>에서 ‘천 년’을 살아도,
<영의 세계>에서 ‘하루’를 산 것만 못합니다.

시간을 아껴 쓰며 <영>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.

<영의 세계>를 위해 행할 것들을 해 놓아야 됩니다.

<자기가 해 놓은 것>을 따라, 다른 자들도 행하게 해 줘야 됩니다.

그러면 <그 영광>이

- ‘해 준 자’에게도 영원히 가고,
- ‘보고 행한 자’에게도 영원히 갑니다.

- ◆ <자기 생각>대로 살면,
많은 시간을 살아도 ‘육에 속한 시간’입니다.

그 시간에 행해서 ‘얻을 것’을 얻었어도
<사람의 생각>으로 행해서 얻었기에 ‘육에 속한 것들’입니다.

이는 마치 ‘먹고 없어지는 음식’과 같습니다.

- ◆ <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>대로 살아야 됩니다.

그래야 <육의 세계>에서도 ‘육’ 이 얻을 것을 얻어 일생 동안 쓰고,
<영원한 것>도 얻게 되어 ‘영’ 이 영원히 씁니다.

- ◆ 어떤 자는 시간을 아껴서, 겨우 ‘**육의 시간**’ 으로만 씁니다.

이는 마치 ‘**배고플 때 음식을 만들어 먹는 자**’ 와 같아서
그때만 배부르게 먹고 끝납니다.

- ◆ <영>을 위해 ‘하나님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시간’ 으로 써야
 - <육>도 영원한 것을 위해 사니 가치 있고,
 - <혼>도 <영>도 변화되어 삼위와 영원히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.

이런 삶을 사는 자는

<육의 시간을 쓰는 자의 삶>과 비교할 수 없는 자로서,
<영원한 영광의 삶을 사는 자>입니다.

- ◆ 주는 말씀합니다.

“<시간>을 아껴 ‘생명’ 을 구하고, ‘영원한 말씀’ 을 전해 주어라.
<생명>도 관리하고, <자기>도 관리하여라.
이것이 ‘명철과 지혜와 총명의 생각’ 이니라.

<시간>이 있어도

네 머리에 ‘전능자의 지식과 지혜’ 가 없으면 행할 수가 없나니,
<지식>은 ‘말’ 로 배워서 알고, <지혜>는 ‘행위’ 로 아느니라.

너는 <먼 길을 급히 떠나는 자>와 같이 ‘시간’ 을 쥐고 다스려라.
<마음과 생각>으로 다스리고, <행하면서> 다스리는 것이니라.”

* 잠시 쉰다.

- ◆ <시간>을 쥐고 있기만 하고 안 쓰면,
마치 ‘추운 겨울에 뜨거운 물을 그냥 둔 것’ 과 같아서
뜨거움이 점점 식어 없어지듯 - 시간이 점점 없어집니다.

고로 <시간>을 쥐고 있기만 하지 말고,
그 시간에 할 일을 하며 ‘써야’ 됩니다.

- ◆ <시간>은 ‘돈’ 과 같습니다.

다만 <시간>은 ‘돈’ 과 같이 저금할 수는 없습니다.
고로 그때마다 순간순간 합당하게 써야 됩니다.

이것이 <하나님의 지혜>이며, <총명과 명철의 생각>입니다.

- ◆ <자기 생각>은 - 항상 ‘자기에게 속한 육의 일’ 만 하게 합니다.

<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>으로 해야
- ‘하늘에 속한 영의 일’ 을 하게 됩니다.

- ◆ 10년, 100년 자기 생각대로 해 봤자,
<순간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행한 것>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.

<인간의 지혜>는 차원이 낮아서,
그 지혜로는 일생 동안 <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>에
단 한 번도 미치지 못하고 죽습니다.

이를 깨닫고, 늘 ‘하나님께 속한 영의 생각’ 으로 행하기 바랍니다.
그런 자는 <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지혜를 받고 사는 자>입니다.

- ◆ <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>을 가지고 살면,
 - 삼위가 자기 육을 통해 행한 격이 되어
 - 자기 혼도 영도 ‘신적으로 변화’가 됩니다.

고로 ‘삼위의 사랑의 대상’이 되어

- <육>도 땅에서 일생 동안 삼위와 사랑하며 살고,
- <영>도 천국에서 영원히 삼위와 사랑하며 삽니다.

이런 삶을 살아야

유수 같은 세월 속에 살아도 허무하지 않고 기쁨과 희망으로 삽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어떤 한 가지를 잘하면, 그로 인해 금메달을 따기도 합니다.

이와 같이 <영적인 것>에 대해서도 잘하면,

<그 차원>에 오르게 되고 <얻을 것>을 얻게 됩니다.

- ◆ <얻게 되는 것>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.

<기회>는 모두에게 줬으나, <행하는 것>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

- ◆ 어떤 자들은 자기 영혼이

영원한 지옥 · 무저갱 · 흑암 · 음부로 가는데도 구하지 않고,
 <육>에 속해 혈기 · 시기 · 질투 · 악평 · 험담을 하며 삽니다.

그러니 더 빨리 ‘악 쪽’으로 달려가는 격입니다.

<하나님의 새 역사가 진행되는 당세>인데도

자기 생명을 관리하지 못하고 ‘육’에 속해 사니,

<자기 생명>을 ‘사망’에 뺏긴 것입니다.

하나님과 자기를 구원하는 자를 배신한 연고입니다.

- ◆ 이들은 포식자의 손에 잡혀 사니, 점점 죽어 갈 운명입니다.

주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간구하나,
그들이 교만과 고집과 무지로 돌이키지 않으니
오히려 <사망>을 재촉하며 ‘악의 세계’로 더 빨리 달려갑니다.

<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영과 육의 삶들>입니다.

이런 자들은 ‘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’인 고로,
차라리 나지 않았으면
<그 영>이 ‘영원한 사망의 고통’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.

<그 육신의 삶>도 ‘잠깐’입니다.

- ◆ 고로 주는 말씀합니다.

“<생명의 말씀>으로 자기 마음도, 행위도 의롭게 하여라.
매일 <의로운 행위, 의로운 삶>이니라.

온전하여라. 삼위와 주와 같이 살아라.

지금은 하나님과 성령이 땅에 좌정하시어 그 육과 함께 살 때니라.”

* 잠시 쉰다.

- ◆ <하나님의 뜻>을 이뤘어도 소경들은 모르고 삽니다.

<하나님과 성령님>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니,
하나님도 성령님도 ‘그 행위’대로 그들을 대하십니다.

또한 <자기를 위해 보낸 구원자>를 미워하고 멀리했으니,
주도 그들을 가까이 대해 줄 수가 없습니다.

개인도 그러하고, 민족도 세계도 그러합니다.

고로 <그 행위>대로 하나님은 ‘화’도 ‘복’도 주셨습니다.

◆ 이제 <그의 때>가 됐습니다!

그가 시대 십자가로 시대 췌값을 대신하고, 부활되어 나왔습니다!

하나님도 성령님도 <그>를 통해 ‘축복’을 주십니다.

고로 <그>를 통해 ‘하나님이 주시는 축복’을 받아야 됩니다.

그러나 소경들은 ‘영원히 다른 길’을 가르코 알 수가 없습니다.

◆ 하나님은 <시대의 부활의 때>, <주의 부활의 때>에 맞춰
민족의 축제도 행하게 하셨습니다.

이미 ‘때’에 따라, 민족의 축제를 하고 끝냈습니다.

오직 ‘하늘에 속한 자들’만 알고 행하며 역사를 펴 갑니다.

◆ <육에 속한 축제>와 <육에 속한 때>는 ‘한때’ 하고 지나가지만,
<하나님의 부활의 새 역사>는 ‘연속’ 됩니다.

고로 <하나님의 부활의 새 역사에 참여한 자들>은

주와 함께 ‘부활의 영광’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.

그 기간은 ‘새 시대 새 역사가 진행되는 때까지’입니다.

◆ - 주관권이 다르면,

<같은 시대, 같은 땅>에서 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.

- <육에 속해 사는 자>는 ‘새 시대’가 와서 다 이뤘어도 모릅니다.
- 알아도 ‘가치’를 모르면, 점점 세상으로 나갑니다.
그러다 ‘세상’이 자기를 삼키면, 영원히 돌아오지 못합니다.

오직 <깨닫고 끝까지 행한 자>만
영원한 황금성 천국을 상속받습니다.

<말씀 마무리>

◎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<죄인들>은 ‘의인’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서
자기들은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합니다.

그들의 죄로 인해 <주>는 ‘잠깐의 고통’을 받으나,
<그들>은 ‘죄의 형벌’을 받고 ‘영원히 고통’을 받습니다.

<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>이 그들의 악한 행위를 밝히고 증거하니,
당세에도 후대에도 그들을 ‘죄인’으로 알게 합니다.

- ◆ <악의 결국>은 ‘심판’입니다.
하나님이 주와 함께 심판하시어 ‘악’을 영원히 소멸시켜 버립니다.

- ◆ 주가 말씀합니다.

“<악인들의 소원>은 영원히 이루지 못하니,
<의인들>이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모시고
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리로다.”

이는 ‘하나님의 예정된 바’ 이니라.

<봄>은 기다리면 오나니, 이같이 되었느니라.

하나님이 주를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,
<육의 세계>도, <영의 세계>도 다스리며 살지어다.

<주>는 ‘따르는 자들’ 을 ‘그 지체’ 로 삼고 사나니,
너희는 매일 <주>를 ‘머리’ 로 삼고 ‘영의 생각’ 으로 살지어다.

이는 ‘너희가 매일 행할 삶’ 이니라.”

◎ 오직 ‘주를 머리’ 로 삼고 사는 삶!

오직 ‘주의 말씀’ 을 따라 사는 삶!

오직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생각’ 으로 사는 삶!

이것이 ‘영의 생각으로 사는 부활의 삶’ 입니다.

◎ 다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. <자막>

부활의 시간을 뺏기지 않고 이 귀한 시간을 아끼며,
육도 영도 다스리며 영원한 것을 위해 행하고,
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생각으로 행하고,
나 자신과 생명들을 더욱 살피고 구원하고,
시대와 주를 증거하며 ‘부활의 새 삶’ 을 살겠습니다. (아멘!)